

쥐어짜는 듯한 흉통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



건강 바로 알기 심근경색

김현욱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진료과장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괴사되는) 질환이다. '혈전'이라는 피떡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갑자기 막아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협심증은 혈류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의 괴사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차이로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1/3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한다.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며 빈도수가 증가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원인과 증상▶관상동맥의 벽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 막(fibrous cap)이 생긴다. 어떤 이유로든 이러한 섬유성 막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 안쪽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고, 이곳에 갑작스럽게 혈액이 응고해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나 혈액학적 원인, 겨울철에 온도가 내려가서 혈관의 수

환자 50% 증상 없어...관상동맥 확장 성형술·혈전용해제 치료 당뇨·고혈압·흡연·비만·가족력 등 동맥경화증 위험인자 조절

축 등에 의해 일어나는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50% 이상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평소대로 예방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경우 빠른 진단과 이어지는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우선 매우 극심한 가슴 통증(흉통, 특히 좌측에 발생)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통증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가슴이 찢어지듯', '벌어지는 듯', '숨이 멎을 것 같은', '쥐어짜는 양상' 등의 통증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통은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므로 환자들은 대개 이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다.

◀진단과 치료▶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시행하면 응급실 도착해서 1시간 이내에 보통 진단할 수 있다. 초음파상환의 심근경색인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STEMI)는 심전도에서 전형적인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돼 심전도만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심근 괴사 정도를 나타내는 심근 효소 수치 검사는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채혈 후 1시간 정도가 대략 필요하다. 다만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전형적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바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각 병원에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혈전을 녹이는 약물(혈전용해제) 치료를 우선하기도 하고, 바로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

로 들어갈 수도 있다. 어느 치료 방법든지 가장 빠른 시간에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2시간 이내(golden time)에 개통해 주어야 심근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막힌 관상동맥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stent)라는 금속 그물망을 이용해 혈관을 확장하는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대학병원 몇 곳에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보편화됐다. 최근에는 2시간 내 (특히 시술까지 90분 이내)에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할 수만 있다면 약물치료를 하는 것보다 환자의 경과를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물로 관상동맥을 뚫는 방법으로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 치료가 대표적이다.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관리와 주의 사항▶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이나 혈전용해제로 치료한 후에는 다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중요하다.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강하게 사용하고, 심장 근육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첨가한다. 아울러 당뇨,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장병의 가족력, 비만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기독병원 김현욱 과장이 운동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을 진료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질 혈증, 가족력, 비만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건강한 환자이며, 나머지 50%는 협심증 증상이 있던 환자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 부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흡연,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이나 관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했다더라도 일반인보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김성재 교수 대한수면학회 SMR 학술상

조선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재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SMR (Sleep Medicine Research)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성재 교수는 '아침형-저녁형 일주기 유형별 수면시간, 주간졸음 및 카페인 사용에서의 남녀간 차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일주기 유형과 관련된 수면습관의 성별간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 SMR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선정논문은 수면의학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대한수면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Sleep Medicine Research 2022년 3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SMR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면의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상담위원, 대한수면학회 무인소아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베트남 국제기업과 MOU 하노이 메디팜 엑스포 참가...치과 소재부품 수출 동력 키워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생체의료산업보유 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베트남 하노이 'Medi-pharm Expo' 전시회를 참가했다. <사진> 이번 전시회는 지난 1일~3일 하노이 국제전시센터에서 진행됐다.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생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메디팜 엑스포 참가로 해외 치과 기술 전략과 정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세미나 및 베트남 Mahanaim 국제기업과 MOU를 맺었다. 더불어 광주지역 치과 의료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인 케이제이메디텍은 선진 치과 의료 제품을 전시 현지 바이어들에게 광주지역 생체의료 관련 제품의 우수함을 보여주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수출 역량이 큰 힘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는 한국, 폴란드, 벨로루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등 국가 및 지역의 220개 업체가 참가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상그리라이바이오-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 NKT 면역세포치료제 등 제품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그리라이바이오(대표 윤택림 전남대병원 교수)는 지난 9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와 'NKT 면역세포치료제 등의 제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품질관리 시험, 정보기술 및 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상그리라이바이오는 암을 치료하는 차세대 첨단 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NKT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RK 항암제 등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상그리라이바이오는 지난 5월 NKT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설비 시설을 완공, 10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여 임상 시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